

수석이 전하는 실패, 그리고 합격

제 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최민규 님

I. 들어가며

관세사 수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선배 관세사님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관세사 합격의 꿈을 키웠고, 수험 기간 중에 힘들고 지칠 때 마다 선배님들의 합격 수기를 다시 읽으면서 의지를 다지곤 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세사의 꿈을 가지고 새로이 공부를 시작하는 후배님들이나, 고독하고 외로운 수험 생활에 지친 후배님들을 위해 합격 수기를 쓴다고 생각하니 더 없이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

수기를 시작함에 앞서, 부족한 저에게 수석이라는 과분한 영광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제갈 현근 관세사님, 조천희 관세사님, 김병수 관세사님, 박병호 관세사님, 최권수 관세사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하에서는 지난 저의 3년간의 수험기간 동안에 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였던 것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로 하여, 1차 시험보다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2차 시험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또한 2차 시험에 있어서 4가지 과목별 공부 방법 및 2차 공부 방법 시 유의 사항 및 기피 하여야 하는 것 등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II. 3년의 수험기간 전반에 대하여

이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제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합격 했습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러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했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나'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예비 후배 관세사님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또는 실수를 줄이고 저와 같이 3년이라는 긴 수험 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유예 기간 내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 관세사 시험의 시작 계기

2011년 5월에 미국에서의 교환 학생 과정을 끝나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3학년 이였기 때

문에 이대로 다른 친구들이나 동기들과 같이 취업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힘든 길이라는 걸 알지만 관세사에 한번 도전 해볼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제 자신을 믿고 관세사의 꿈에 한번 도전해 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2011년 7월에 사당에 있는 동남고시학원에 1차 종합반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2.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 동차 준비 시기

(1) 전반적인 공부 커리큘럼 및 흐름

처음으로 관세사 수험 공부를 시작하면서 왠지 모를 막연한 자신감에 무조건 동차 합격에 도전해 보자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강사 관세사님들이나 학원 실장님들에게 상담을 할 때마다 ‘동차는 절대로 불가능 하다’, ‘동차를 준비하다가 오히려 수험 기간이 더 길어 질 수 있다’ 등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험 생활의 초창기 우리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얼마나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의욕이 최고조로 도달 해 있었던 때였으므로 그러한 조언들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려운 것이지만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동차에 대한 생각을 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7월부터 8월 간 1차 종합반을 수강하고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2차 종합반,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문제 풀이 반을 수강하면서 2011년의 거의 대부분을 2차에 할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이 되자 1차를 떨어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으로 2012년 1월부터 1차 시험 전까지는 1차 시험에 사활을 걸고 1차 시험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시험에는 별 무리 없이 합격 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 후, 동차를 준비하였으므로 2차 시험을 바로 준비하여 2012년 7월에 있는 제29회 관세사 2차 시험에 매진하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결과는 무역실무에서 과락이 나며 불합격 하였습니다.

(2) 동차 수험 기간에 대한 평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관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동차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 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차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사실 그해 9월이나 10월에 발표되는 2차 시험 결과에 대하여 ‘그래도 컷트 라인엔 걸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2차 시험을 치른 후 결과 발표 일까지 관세사 공부는 손에 놓고 발표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정말 속칭 ‘쌍동차’로 합격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극히 드뭅니다. 물론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확률 상으로 봤을 때 그 가능성이 정말로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동차에 실패 하게 되면 유예를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차를 준비하지 않은 일반적인 유예생의 경우 대부분 그해 1차 시험을 본 후 5월부터 내년 2차 시험이 있는 6월 또는 7월까지 거의 1년 이상의 기간을 연속해서 2차

만을 준비할 수 있고,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그 다음 해부터 시작되는 2차 모의고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차생의 경우 2차 합격 여부를 기다리면서 2차 공부에 아예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을 치른 후 부터 결과 발표일까지의 3개월가량의 기간을 날려버리게 되어 공부에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지며, 그 해 10월부터 2차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2차 모의고사에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유예 기간마저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예비 후배 관세사님들에게 동차 준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저를 포함하여 많은 동차 준비생들이 '내가 바로 그 미약한 확률을 가져 갈 것이다!' 라며 도전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먹었던 것인가 후회하곤 합니다. 앞으로 내가 수험 기간에 배운 지식을 통해 평생 관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과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습득한 내용으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합격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배 예비 관세사님들에게 동차 준비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그 가능성의 희박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길고 힘든 수험기간이 '관세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험 기간이 아니면 언제 그 방대한 양의 무역관련 지식들을 습득하고, 경험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후배 관세사님들도 목표를 단순히 2차 시험 최종합격에만 두는 것이 아닌 관세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험 생활을 계속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유예 기간

(1) 전반적인 공부 커리큘럼 및 흐름

동차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내심 합격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2차 결과 발표 때까지의 3달 중 2달은 휴식하고 9월에는 학교에 다시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차 시험에 불합격 하였고 결국 10월부터는 학과 수업과 유예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 앞의 고시원으로 이사를 한 후 학교 수업 및 과제 준비 기간 이외의 모든 시간은 2차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학원 강의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학교 독서실에서 자습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과 수업과 수험 준비를 동시에 진행 하기는 물리적으로 너무 벅찼고, 그 결과 2회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2013년 1월에 시작되는 2차 모의고사 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동차준비시기와 동일하게 사당의 학원에서 2차 모의고사를 다시 봤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동차 준비하였을 때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모의고사가 진행 되어 2차 모의고사의 점수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동차 준비 시기와 전혀 다를 것 없이 어떠한 것도 발전되지 않은 상태로 유예 기간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2013년 6월에 있었던 2차 시험에서 동차 때와 유사한 점수를 받고

평락으로 불합격 하게 되었습니다.

(2) 유예 수험 기간에 대한 평가

저의 유예 수험 기간은 정말 수 없이 많은 판단 착오와 무사 안일함의 종합 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동차를 준비하면서 얻은 점수가 합격컷라인에 거의 근접한 점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아, 동차하는 수준 정도에서 좀 더 디테일만 살리면 충분히 합격하겠네.’ 라는 정말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실수였고, 두 번째로 유예 기간 중에 수험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를 휴학하지 않은 점 또한 실수이며, 세 번째로 만약 학과 수업이랑 병행하였다 하더라도 학원 강의를 듣지 않고 스스로 독학만으로 2차 모의고사까지의 공부하였던 것입니다. 혹여나 동차 준비를 하다가 불합격하여 유예를 준비하시는 후배님들은 무조건 이 기간에 학원 강의를 다시 한 번 꼭 수강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2차 공부를 놓았기 때문에 우선 거의 대부분의 공부 내용이 삭제되고 회독 속도 또한 상당히 느려져 2차 모의고사를 위한 기본 체력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동차 실패 후 동일한 학원에서 2차 모의고사를 계속하여서 진행하였던 것도 실패의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학원의 모의고사라는 것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익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문제를 읽자마자 아무런 생각 없이 ‘아, 그냥 이거 쓰라는 문제구나’ 라는 식으로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지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정말 기계적으로 제가 외운 것을 쓰는 식으로 모의고사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모의고사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모의고사에 들어갔었고, 또한 동남의 모의고사는 강사님들이 직접 답안지를 채점하는 시스템 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친분이 있었던 강사 관세사님들에게 일종의 실망감(?)을 안겨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는 학원 모의고사의 특성상 과거에 한번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는 다시 모의고사 문제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한번 모의고사에 출제된 부분은 회독수를 늘릴 때 제외하여 공부하고 나오지 않은 부분만을 공부하는 식 등의 정말 말 그대로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는 항상 10위권 안을 유지하였고 높은 등수에서 오는 막연한 안도감으로 유예기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최악의 판단 미스와 안일함이 모여 결국 2차 시험에서 평균 47점으로 불합격 하게 되었습니다.

4.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3년차 동차 기간

(1) 전반적인 공부 커리큘럼 및 흐름

유예 기간의 참담한 실패를 통하여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공부 방법을 다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수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 하였고, 그러한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학원을 FTA 관세무역연구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3년차 동차는 FTA 관세무역연구원에서 실시하였던 합격자 설명회를 차디찬 독서실 골방에서 노트북으로 시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제30회 시험 수석 관세사님의 수험 과정을 전해 들으면서 ‘아, 나는 정말 관세사가 될 자격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철저하게 저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3년차 동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주 교재를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각 강사님들의 교재로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3년차 동차였던 관계로 1차를 병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수험생들의 공공의 적인 회계는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같이 투자 하였고, 내국 소비세법은 그 다음 해 2월부터 강의를 1회 수강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사실상 관세법과 무역영어는 2차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관세법과 무역 영어에 따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회계 및 내국소비세법 위주로 1차 시험을 준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시험은 무난히 통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의 경우에는 2013년 10월부터 11월 까지 두달 동안 제갈 현근 관세사님의 관세법 기본이론을 온라인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2차 모의고사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2차 관세법 및 무역실무 문제풀이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3년차 동차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마음속으로 한 다짐은 이왕 합격할 거라면 합격 커트라인에 걸치기만을 바라면서 안일하게 공부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비하여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 가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압도적으로 이 시험에 합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양의 공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실제 공부시간을 무조건 12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시간이란 우리가 독서실에 앉아서 집에 올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합하여 12시간이 아닌, 실제 독서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만을 총 합한 시간, 즉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로 공부한 시간만을 12시간 이상으로 하자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하여 하루 전체가 망하는 스타일 이였기 때문에 잠은 충분히 잤습니다. 저의 하루 스케줄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전 9시~9시 30분: 기상

오전 10시부터 11시: 세면 및 식사 후 독서실로 이동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총 8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으로 나누어 2차 3과목 공부

오후 6시부터 7시: 저녁식사

오후 7시부터 9시: 나머지 2차 1과목 공부

오후 9시부터 12시+@: 부족한 2차 과목 보충+새끼 과목(대외외환, 환특법)

하지만 위와 같이 언제나 공부를 한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2차 4과목의 비중을 매우 많이 높여서 새끼 과목들은 사실 거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인지라 언제나 12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지 않는 날은 하루 9~10시간 정도 한 적은 있었으나 슬럼프가 와서 하루를 통째로 망하는 날은 하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3년차 동차 기간에 대한 평가

3년차 동차 수험 기간은 지난 2년간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 무언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선 모든 2차 과목이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3년차 동차 기간이었고, 그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력의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치로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투자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수석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Ⅲ. 2차 각 과목 별 공부 방법

누군가 이르기를 '2차 합격생이 90명이 있다면, 90가지의 합격 방법이 존재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의 수험 생활은 계속되는 실패와 보완의 연속이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3년차 동차 기간에는 저만의 공부 방법을 정착시키고, 이를 2차 시험 전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0가지의 합격 방법 중의 한 가지 방법이지 이것이 예비 관세사 후배님들을 합격으로 인도하는 왕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 관세법(유예:41점, 3년차 동차:62점)

(1) 전반적인 공부방법

저는 유예 기간 까지 2년간 관세법을 목차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작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항상 제대로 생각나지 않았고, 내용 또한 매우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유예생 때는 오히려 동차 시절보다 관세법 과목에서 점수를 훨씬 낮게 받아서 불합격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차 동차 기간에는 제갈 현근 관세사님의 기본 이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세법을 우선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법조문을 단순히 암기하기에 급급하여서, 이러한 법이 왜 제정되었는가 하는 취지나 제정 목적 등에 대하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30회 관세사 시험부터 처음으로 제공되었던 채점평을 보고 나서 관세법에 대한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금번 제31회 관

세사 시험 채점평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더 이상의 법조문의 단순 암기만으로는 관세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갈 현근 관세사님의 교재의 목차 1을 항상 정독하여 이해하고 그 다음 해당 법조문을 암기하는 식으로 관세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50점짜리의 후반부 논제 및 10점짜리의 다양한 연계 문제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이왕 법조문을 외우려면 최대한 해당 법조문과 똑같이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법조문과 똑같이 외우는 편이 실수를 하지 않고 매번 똑같이 서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조문과 동일하게 외우는 방법의 맹점은 주어진 문제가 방대한 양의 내용을 축약해서 서술해야 하는 문제인 경우에 그 축약과정의 유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수험생들 각자가 판단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실제시험

50점 문제를 보고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의 5분가량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대목차를 문제에서 주어진 동그라미 목차인 부과대상, 부과절차, 부과 금액의 결정, 미납시 조치사항 등으로 잡지 않고 대목차를 가산세, 가산금, 과징금으로 잡은 뒤 하위 동그라미 목차를 대목차 안에 개별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험을 보고 난 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는 차이점에 대한 기술을 해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서술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번 문제는 굳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해당 내용을 나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점수 역시 나쁘지 않게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의 서술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점 문제 역시 평소에 제갈 현근 관세사님이 강조하신 법 제정의 목적, 취지, 의의 등이 해당 법조문과 엮어서 나왔기 때문에 무리 없이 서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유예:45.5점, 3년차 동차:67.5점)

(1) 주교재 및 통칙의 중요성

2교시 과목의 중 HS는 특히 2년간 공부하면서 언제나 통칙을 간과하여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였는데, 3년차 동차를 시작하면서 통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되고 난 후부터 HS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관세사 공부를 시작하는 예비 관세사 후배님들에게 HS를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통칙에 대한 제대로 된 숙지가 기반이 되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HS의 모든 품목분류는 통칙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 전반적인 공부 방법

3년차 동차를 준비하면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간은 철저하게 HS의 주 규정 및 통칙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주규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를 외워서 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HS를 공부하였기 때문에 정작 그 당시에는 외운 것 같았어도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에는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거나 틀리게 서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HS를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해를 하거나 해당 주규정을 원문과 똑같이 암기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저는 해설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HS에서 해당 호의 용어 및 관련 주규정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들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호의 용어 및 주규정을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해설서입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규정을 공부 할 때 꼭 그에 대한 해설서도 함께 공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단순한 주규정의 나열이 아닌 풍성한 설명을 곁들일 수 있으며 그러한 설명은 다른 수험생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좋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3) 답안 기술 관련

3년차 동차를 준비하면서 우연경 관세사님의 문제풀이 과정을 인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우연경 관세사님의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강의를 수강하면서 처음으로 2차 논술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을 하였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득점을 받고 채점 위원들에게 나의 답안지를 어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HS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2년간 HS에 대한 서술을 김성일 관세사님의 교재에서 각 류별 주요 주 규정을 목차로 정리한 부분을 그대로 암기하여 그 주제가 나오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서술은 실제 시험에서 전혀 효과를 발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시험은 모의고사와 언제나 다르게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차 동차를 시작하면서 부터는 통칙 1에 의한 분류, 즉 해당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완벽한 암기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호의 용어 및 주 규정의 원문 그대로의 서술과 해설서의 조합을 통한 방식으로 대부분의 논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호의 용어 및 주 규정은 법문 그대로 박아 넣고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해설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제31회 관세사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했다던 HS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마 ‘과연 그 많은 호의 용어를 다 암기하여

야 하나' 라는 의문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걸 과연 인간이 외울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다양한 생각이 들으며 스스로 이걸 불가능 한 것이라 한정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년차 유예 기간까지도 호의 용어는 주 규정에 나오는 주요 호 위주로 암기하였고, 사실 상 그마저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3년차 동차 기간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단호하게 호의 용어를 외우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칙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품목 분류는 우선적으로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는 어떻게 보면 HS를 이해하는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의 용어를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라 하는 것이 아닌 제 몇류 몇호에 대강 어떠한 것이 분류된다는 것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호의 용어 및 주 규정을 암기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암기 공식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HS과목에서만 암기공식이 중요성을 가지는 과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 규정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기 위해 조천희 관세사님의 방식처럼 흡사 주문을 외우듯이 관련 주규정의 앞 글자나 특징을 이용하여 다양한 암기 공식을 준비하여 실제 시험에서 주규정을 원문과 거의 동일하게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기 공식은 개인적으로 정말 완벽하고 기발하여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남이 만든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든 암기 공식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남이 만든 암기 공식은 그야말로 휘발성이 강하여 결국에는 정말 암기식만 기억나고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실제 시험

이번 31회 시험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과목이 바로 HS일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HS에서 과락을 받거나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HS시험을 치루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절대로 자의적으로 주규정의 중요도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HS의 주규정은 어느 하나 놓치지 말고 그대로 숙지하여야 정말 마이너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50점 문제에서 모든 수험생을 멘붕으로 몰아넣었던 3번,4번 문제는 '최대한 저항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아는 만큼 서술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4번 문제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는 모의고사에서 조천희 관세사님의 출제한 바가 있어서 그나마 해설서에 근접한 내용으로 기술이 가능했던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지어내다 사피하여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는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른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당황하는 경우 해당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많은 문제들 모두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0점짜리 문제 역시 주규정 및 해설서를 이용하여 아는 범위 내에서 무리 없

이 서술을 하였습니다.

3. 관세평가(유예:49.5점, 3년차 동차: 59.5점)

(1) 주교재

제 관세평가 주교재는 정민규 관세사님의 교재와 김병수 관세사님의 핸드북을 주교재로 하였고, 모의고사에 들어가서 부터는 김병수 관세사님의 모의고사내용과 핸드북만을 활용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2) 전반적인 공부 방법

제가 관세사 공부를 시작하였던 제29회 관세사 시험부터 관세평가에 대한 악명은 자자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수험생을 과락이라는 공포에 빠트리곤 했던 과목이 바로 관세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HS와 함께 더불어 가장 재미있게 공부하였던 과목이 관세평가 였던 것 같습니다. 관세평가는 법조문 자체는 굉장히 그 내용이 적지만, 깊이 들어갈 수 록 그 내용은 무궁무진하여 정말 심오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관세평가를 공부할 때 우선 평가 주제별로 평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관세법, 령 및 고시의 내용과 WTO 평가협정을 카테고리화 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즉, 어떠한 특정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당 평가 판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법,령,고시,협정 순으로 카테고리 하여 실제 답안 기술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관세법,령,고시와 협정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최대한 관세법,령,고시의 내용을 활용하였고, 관세법,령,고시에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만 협정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관세평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한 공부할 때 양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관세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답안 서술 방식

올해 초에 실시되었던 첫 번째 짜 모의고사에서 저는 제가 받은 관세평가 점수를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50점 짜리 문제 위에 17점이라고 적혀 있기에 ‘아, 50점 짜리를 17점 맞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문제에 대한 총점이 17점이 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김병수 관세사님의 서술 방식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였고 이 방식을 사용 할 것인 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 갈 수 록 김병수 관세사님 스타일의 서술 방식으로 바꾸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목차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방식의 서술이 이루어지다보니 서술에 흐름이 끊기고 쓰다보면 내용이 점점 산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 비재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관세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에 대한 서술은 두 세 줄에 그치고 암기한 법령 내용을 늘어놓는 것이 주가 되어 이루어져 구성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점수 또한 고득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병수 관세사님의 모의고사 서술방식을 통해서 평가 판단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서술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평가 판단 시 판단의 근거인 법령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 판단에 필요한 핵심 법령만 발췌하여 서술하는 것이 가능해져 시간 배분에도 용이하고 구성이 상대적으로 깔끔해진 답안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실제 시험

2차 시험을 다 보고 나오면서 유일하게 불안했던 과목이 관세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50점 문제의 답이 틀렸고, 10점 문제에서도 두 문제 정도 논점을 벗어난 서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9.5 점 정도의 점수가 나온 것을 보면 관세 평가 과목에서 답을 맞추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답이 도출되는 과정에서의 판단과 논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 무역실무(유예:53점, 3년차 동차:65.5점)

(1) 주교재

무역실무는 최권수 관세사님의 교재와 박병호 관세사님의 교재 그리고 요약집을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최권수 관세사님의 교재는 무역실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박병호 관세사님의 교재는 심화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역실무 요약집을 통하여 핵심만을 정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2) 전반적인 공부 방법

무역실무는 워낙 그 자체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단순 이해를 요하는 부분과 심화 학습을 요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무역의 개요, 무역거래의 절차 및 성립과정 등의 부분은 단순 이해 정도로 넘어갔고, CISG, INCOTERMS, UCP 등 주요 국제 협약은 협약 자체의 이해와 더불어 서로 간의 관계까지 심화하여 학습을 진행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의 수험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역 실무는 어떠한 심화 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출된 문제를 봐도 과거와 달리 무역 실무에서 복잡하게 꼬아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본 개념에 중점을 두고 충실히 공부를 한 다음에 관련된 심화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 방법으로 공부를 진행 하였습니다.

대외, 외환의 경우 3년 차 동차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대외, 외환에 많은 시간을 투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환은 버리고 대외무역법에 올인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대외의 경우 이해하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서술하기도 용이한 반면에 외환은 이해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 암기 하는 것 또한 저에게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출제된 범위 위주로만 한정하여 공부 하였습니다.

(3) 실제 시험

무역실무 50점은 동차시절부터 항상 준비해오던 것이라 자신 있게 썼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점 짜리 역시 MIA관련 문제를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외, 외환의 경우 대외무역법은 준비하였던 것이 나와서 다행히 자세하게 서술 할 수 있었지만, 외환의 경우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전혀 쓰지 못하였습니다.

IV. 수험 생활 간 유의 사항 및 기타 사항

다음에는 유예 기간을 실패로 끝나치고 나서 제 스스로 그리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그 실패 원인에 대한 많은 분석을 통하여 얻은 수험 생활 간에 지양해야 하는 것들과 기타 유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1.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시험 범위의 한정

흔히들 '제끼기'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 부분의 내용을 아예 제외하고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끼기가 위험한 것은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제끼는 부분은 자신들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암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제 위원님들은 우리 수험생들의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선 꼭 수험생들이 제끼는 부분에서 한 두 문제는 무조건 출제되기 마련입니다.

단적인 예로 유예생일 때 2차 관세법 시험에서 10점짜리로 지식재산권 관련문제와 육로 통관 절차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지식재산권 문제는 '설마 동일한 주제로 3년 연속 출제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 자체를 스킵했었고, 육로 통관 절차는 '설마 이렇게 나오겠어?'라는 마인드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가 출제되었고, 시험장에서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웠습니다.

해당 법조문이나 이슈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수험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 위원이신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에 대해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암기하기 싫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한번 품고 넘어가면 다음 회독 수를 늘려갈 때마다 점점 이해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

앞서 저의 유예 기간 2차 모의고사 공부 방법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1월부터 2차 시험이 있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총 24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모의고사에

서 24번 1등 한다고 하여서 실제 시험에서 무조건 합격이 보장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난 3년 동안 저와 저의 스터디원들을 포함하여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의 스터디원들은 동남에서 2차 모의고사를 실시하였을 때 언제나 10위권을 벗어나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해에 실시된 2차 시험에서 저희 스터디원 6명이 모두 탈락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의고사는 단지 모의고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최종 2차 시험보기 전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지 24회 동안 실시되는 개별 모의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인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최종 시험에서 잘 보는 것임을 알고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로 시험 전날까지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모의고사를 보고 난 후의 복습

우리 수험생들 대부분은 저번 주에 시험을 본 2차 답안지가 든 봉투를 받게 되면 답안지 겉면에 써있는 해당 과목의 점수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합니다. 저 역시 유예 생일 때 지난 주 채점된 모의고사 답안지를 받으면 점수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해 따로 복습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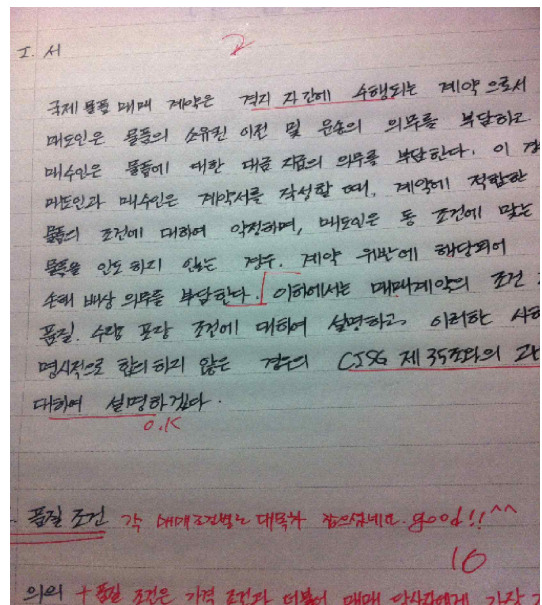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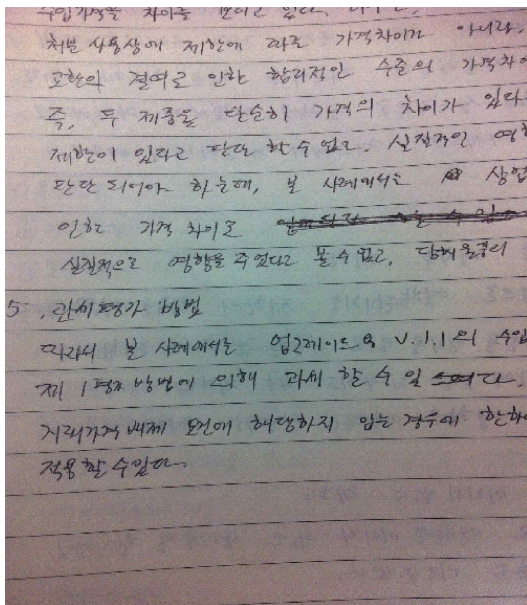
하지만 저는 모의고사가 진짜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는 부분을 점검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히 점검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때 제대로 풀지 못하였던 문제들은 꼭 다시 한번 검토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은 계속해서 모르게 되고 더 이상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점된 모의고사 답안지를 받게 되면 점수만 확인하지 마시고 제대로 쓰지 못했던 부분과 흑여 썼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꼭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글씨와 펜 선택

작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채점평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악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다. 저는 채점 위원이 적어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활자체로 답안지에 서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안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해독하여야 하는 수준이라면 그것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지만 점수를 득점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것은 사실 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답안지를 채점하신 채점 위원분들께서 직접 채점평에 2년 연속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악필을 교정하는 연습을 틈틈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답안 구성에 대한 고민이 극에 달하였을 즈음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답안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글씨 교정본 책을 구입하여 2차 공부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씩 연습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글씨를 쓰려고 노력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헛갈리기도 하며, 솔직히 약간 그 효과에 대하여 반신반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새로운 방법으로 글 쓰는 것이 몸에 베기 시작하여 저도 모르게 이제는 제 글씨체 자체가 새로운 글씨체로 아예 바뀌게 되었고, 급기야 나중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씨를 잘 쓴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진은 제가 동차시절 모의고사 때의 글씨와 올해 초 모의고사 때의 글씨를 비교한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오른쪽의 글씨체가 아무래도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년 차 동차 시절에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차이라도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선택이므로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또 펜 선택에 있어서 저는 다양한 펜을 시도했었는데 처음에는 펜텔의 비쿠냐, 제트 스트림 등의 유성펜을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젤, 사라사 등의 중성펜으로 펜 선택을 바꿨고, 3년차 동차시절에는 사라사 0.7mm만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펜을 시도 해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펜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5. 스터디의 활용

관세사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 스터디의 필요 유무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 역시 2년 동안 스터디를 했었지만 스터디 자체가 관세사 공부 자체를 진행 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을 준다는 느낌은 딱히 받지 못

하였습니다. 다만, 스터디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힘든 수험 기간 동안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관세사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그럼 인천 공항에서 일하는 거야?', '공무원 되는 거야?' 등의 말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 기타 다른 전문 자격사에 비해 관세사가 아직까지 일반 대중들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 수험생들의 외롭고 힘든 수험생활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스터디 원들이 있다면 서로간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힘든 시기를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스터디 원들에게 3년 차 동차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의지했었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제 어깨위에 있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스터디 원들이 없었다면 과연 3년 차 동차 기간을 제대로 버틸 수 있었을 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로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스터디 원들 끼리 모여서 서로에게 힘을 주어가며 스터디가 진행된다면 저는 스터디 활동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스터디를 진행 할 이유가 없겠지요.

V. 마무리 하며

지난 3년간 수험 생활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꼭 합격 수기를 쓰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합격 수기를 쓰면서 지난 힘들었던 수험 기간을 돌이켜 보니 그리 나쁘지 않은 않았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차 동차 기간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몸에 새겼고, 이는 앞으로 제가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합격 수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3년간의 길었던 수험 기간 동안 언제나 묵묵히 바라보며 응원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드리며, 같은 시기에 같은 꿈을 꾸며 힘든 수험 기간 동안에 서로 간에 크나큰 의지가 되어준 이학종 관세사, 이준 관세사, 김동완 관세사, 홍은주 관세사 그리고 32기 수석합격 관세사가 되어줄 유진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무심하고 세심하지 못하여 다른 남자들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기념일 한 번 번듯하게 챙겨주지 못한 나를 언제나처럼 곁에서 지켜주고, 쓰디 쓴 실패를 경험하며 큰 좌절에 빠져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 최은실 씨에게 이 수석합격의 영광을 돌립니다.

제 31기 관세사 최민규 드림